

白沙 李恒福의 北靑 流配와 流配時調 研究

권현주*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北靑 流配의 動因과 白沙의 心情
 - 2.1 백사의 유배 동인
 - 2.2 북청 유배에 대한 백사의 심정
3. 流配時調에 나타난 忠義와 世態에 대한 非難
 - 3.1 光海에 대한 충의
 - 3.2 세태에 대한 비난과 그 變化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

백사 이항복은 임진왜란 이후 다섯 번이나 병조판서가 될 정도로 실무에 밝은 인물이었지만,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지인 북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백사는 전체 6수의 시조를 남겼으며, 본고에서는 5수의 작품만을 유배시조로 보아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백사의 시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북청 유배의 동인과 북청 유배에 대한 백사의 심정을 살펴보았다.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은 윤유겸의 상소에서 시작되었으며, 윤유겸은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기 위해 그녀의 부친인 김제남을 비난하였다. 김제남에게 역적의 죄를 더해 추형(追刑)을 선고하여야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또한, 『춘추』의 고사를 차용하여 광해가 인목대비와의 관계를 끊고 인목대비가 광해에게 '일방 사람'이 되게 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백사가 순임금의 이야기를 통해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윤유겸의 상소를 논변(論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백사가 광해에게 효를 강요한 것이 의도된 오역(誤譯)으로 오히려 백사를 유배형에 처하게 한다.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사.

유배시조를 통해 백사는 광해에 대한 자신의 충의를 표현하였으며, 유배자가 되어야만 했던 세태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였다. 백사와 그의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 중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소략하여, 본 연구를 통해 백사의 북청 유배와 시조에 기술된 유배자로서의 백사의 심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핵심어 : 백사, 이항복, 유배시조, 忠義, 세태 비난

1. 들어가는 말

백사 이항복(1556~1618)은 임진왜란 이후 다섯 번이나 병조판서가 될 정도로 실무에 밝은 인물이었다.¹⁾ 하지만, 광해군 집정 당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위(廢位) 사건에 연루되어 1618년 1월 6일 북청(北靑)으로 유배되고, 그해 5월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²⁾ 백사의 유배를 배행하였던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은 그의 유배에 대한 기록을 『北遷日錄』으로 남겼으며, 유배지에서 사망한 백사를 ‘살아서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백사공이라 칭하기도 하였다.³⁾ 백사는 전체 6수의 시조를 남긴 바 있지만, 그의 문집인 『백사집』에 기록되지 않아 창작 시기와 작품의 창작 배경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백사의 시조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소략한 편인데, 본고는 백사가 남긴 6수의 시조 중 5수를 유배시조로 보아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백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의 한시와 『조천록』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⁴⁾ 그 외에도 서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과 백사의 야담에 대한 연구 등도

1) 광성용, 「광해군代 春秋논쟁과 李恒福의 『魯史零言』-廢母論議를 둘러싼 『春秋』 해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8~29쪽.

2) 1. 이항복을 북청으로 바꿔 정배하였다. 改配李恒福于吉州北靑. 『光海君日記』 光海 10年 1月 6日 1618年. 2. 진 영의정 오성 부원군 이항복이 북청 유배지에서 죽었다. 前領議政鰲城府院君 李恒福卒于北靑謫所. 『光海君日記』 光海 10年 5月 17日 1618年.

3) <북천일록 서>.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서, 2020, 20쪽.

4) 金宗鎭, 「白沙 李恒福 시의 몇 가지 국면들」, 『대동한문학』 제25집, 대동한문학회, 2006,

볼 수 있다.⁵⁾ 또한, 최근에는 정충신의 『북천일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백사의 유배 과정 및 그의 우국정신을 밝히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⁶⁾ 백사의 유배시조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있지만,⁷⁾ 시조와 함께 제시한 한시의 내용 일치가 부자연스럽고 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는 백사의 유배동인을 밝힌 후, 그의 유배시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백사 유배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의 유배동인과 유배형을 선고 받은 백사의 심정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충신의 『북천일록』과 『백사집』을 참고하여 북청 유배를 선고받은 백사의 심정을 밝히고, 유배시조에 기술된 광혜에 대한 충의와 세대에 대한 비난을 분석하고자 한다. 백사의 시조 작품은 박을수의 『한국시조대사전』을 저본으로 한다.⁸⁾

2. 북청 유배의 동인과 백사의 심정

백사의 유배시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백사의 유배동인과 북청 유배를 선고받은 백사의 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75~402쪽; 徐漢錫, 「李恒福의 文學官에 對한 小考」, 『동방한문학』 제29집, 동방한문학회, 2005, 107~132쪽; 이성형, 「白沙 李恒福의 『朝天錄』 研究」, 『한자한문교육』 제17집, 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421~451쪽; 李鍾建, 「白沙 李恒福 詩文學論」, 『동악어문학』 제28집, 동악어문학회, 1993, 439~463쪽; 정역기, 「白沙 李恒福의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제8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07, 47~72쪽.

- 5) 문성대, 「이항복의 골계적 기질과 웃음의 이면(裏面)-문학작품과 우스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36집, 우리어문학회, 2010, 121~146쪽; 이승수, 「李恒福 이야기의 전승 동력과 기원」, 『동악어문학』 제56집, 동악어문학회, 2011, 35~71쪽; 정역기, 「白沙 李恒福과 서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주사학』 제24·25집, 경주사학회, 2006, 313~345쪽.
- 6) 李聖炯, 「晩雲 鄭忠信의 『白沙先生北遷日錄』 研究」, 『한문학논집』 제45집, 근역한문학회, 2016, 157~192쪽.
- 7) 李鍾建, 「白沙 李恒福 時調論」, 『시조학논총』 제13집, 한국시조학회, 1997, 111~122쪽.
- 8) 朴乙洙, 『韓國詩調大事典』, 亞世亞文化社, 1992.

2.1. 백사의 유배 동인

백사의 유배는 광해군 9년(1617)에 있었던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과 관련되며, 이는 유학 윤유겸의 상소에서 시작된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의 국가 형세는 매우 위태롭다고 하겠습니다.(중략) 지난해 김제남을 사형에 처하려 할 때 해당 관청에서 큰 의리에 의거하여 결단할 것을 요청한 것은 국법으로 보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록 질질 끌고 아직도 드러내놓고 단죄하지 않으니, 선비들의 기개가 위축되고 나라의 위세가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⁹⁾

윤유겸은 상소를 통해 가장 먼저 국가의 형세가 위태로운 상태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덧붙여 인목대비의 부친인 김제남(金悌男)을 비난한다. 김제남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하였다는 오명을 쓰고 사사된 인물이기에 윤유겸은 김제남을 지칭하여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역적의 괴수’라 칭한다.¹⁰⁾ 사실 조정에서는 1613년 김제남을 사사한 것¹¹⁾으로도 모자라 그가 사사된 지 3년이 지난 1616년에 김제남에게 역적의 죄를 더해 추형(追刑)을 선고하려는 조짐이 있었다.¹²⁾ 광해는 여러 차례 추형 선고를 반대하다가 결국 찬성하게 되지만,¹³⁾ 추형을 반대하는 인물들로 인해 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¹⁴⁾

9) 伏以方今國勢可謂岌岌(中略) 上年悌男正刑, 則有司請以大義夬決, 法當然矣. 遷然 延期歲, 尙無顯討, 士氣索然, 國勢漸卑.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0) “그러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어찌 일 반적인 견해에 구속되어 역적의 괴수를 옹호함으로써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而其在臣僚, 則有不共戴天之義, 豈可拘守常見, 以護逆首, 置國家於將亡而不爲之計哉.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1) 이에 김제남을 대궐 뜰 안으로 잡아들여 오자(중략) 사약을 내려 서소문 안에서 죽게 하였다. 乃拿金悌男, 入殿庭(中略) 賜藥, 死于西小門內. 『광해군일기』 光海 5年 6月 1日 1613年.

12) 양사가 함사하여, 김제남을 추형할 것을 청하니. 合司請追刑悌男. 『광해군일기』 光海 8年 7月 26日 1616年.

13) 1.“추형을 하는 일은, 나의 뜻을 인하여 비로소 발론되었으니 의리에 있어서 온당치 못하고 인정으로 보아 차마 못할 일이다.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두 번째 아뢰어도 따르지 않았다. “追刑, 因予意而始發, 在義未妥, 於情不忍, 勿爲煩論.” 再啓, 不從. 『광해군일기』 光海 8年 7月 28日 1616年. 2.“역적을 토벌하는 일에 대해서는, 왕법이 마땅히 엄해야 한다.

윤유겸이 상소를 통해 김제남을 비난한 것은 바로 김제남에게 추형을 선고하지 못하였다는 울분(鬱憤)과 아직까지도 그를 단죄(斷罪)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사건에 대해 사관(史官)들은 ‘김제남에게 추형이 허락된 것은 실로 모후(母后)를 폐할 조짐이었다고 기술한다.¹⁵⁾ 즉, 사사된 김제남에게 또다시 추형을 선고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인목대비를 폐위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윤유겸이 상소를 통해 김제남을 비난한 것은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목대비의 폐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윤유겸은 『春秋』의 의리를 가져와 인목대비의 상황을 기술하기도 한다.

노나라 환공이 시해되었을 때 부인 강씨가 이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공자는 『춘추』에 쓰기를 ‘부인이 제나라로 도망쳤다.’라고 하였습니다.(중략) 양나라에서 어떤 계모가 남편을 살해하자, 그 아들이 계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관이 그를 대역죄로 다스리려고 하자, 공계언이 말하기를 「문강이 노나라 환공을 죽이는데 참여한 것에 대하여 『춘추』에는 강씨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며, 그 전에는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예법이다.’고 하였다.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는 곧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도리에 비추어볼 때 법관이 아니면 서 사람을 제 마음대로 죽인 죄에는 해당되지만 대역죄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¹⁶⁾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이러하니 역지로 따르기로 하겠다.” 至於誅逆之典，王法所當必嚴。群議如此，茲用勉從。『광해군일기』 光海 8年 7月 30日 616年.

14) “큰일이 거의 성사되어갈 때 반대하는 논의들이 판을 쳐서 마침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뜻있는 선비와 충직한 신하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개하고 한탄해 마지않습니다.” 大事垂集，異議橫馳，終不得行其策，志士，忠臣爲殿下盡誠者，至今憤惋不已。『光海君日記』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5) 梯男追刑，實廢后之張本。『광해군일기』 光海 8年 7月 30日 616年.

16) 魯 桓公之弑也，夫人姜氏與知焉，聖人筆之曰：“夫人孫于齊。”(中略) 梁人有繼母殺其父者，而其子殺之，有司欲當以大逆，孔季彥曰：‘文姜與弑魯 桓，《春秋》去其姜氏，傳謂：「絕不爲親禮也。」夫絕不爲親，卽凡人耳。方諸古義，直以非司寇而擅殺當之，不得以逆論也。’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윤유겸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나라 환공이 시해(弑害)되었을 때, 그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부인이 제나라로 도망쳤다’라고 기술한 『춘추』의 고사를 차용한다. 윤유겸은 공자가 이 고사에서 문강(文姜)을 강씨로 지칭하지 않고 부인으로 지칭한 것은 ‘관계를 끊고 친(親)으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제나라로 도망쳤다고 기술한 것은 ‘마치 가서 돌아오지 않을 듯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심하게 단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 덧붙여 윤유겸은 호씨(胡氏)의 해석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호씨는 ‘사정(私情)에 따르면 세상의 큰 의리(義)에 해를 끼치게 되고, 왕법(王法)을 거행하면 모자간의 지극한 은(恩)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춘추』의 본문에 ‘부인이 제나라로 도망갔다’고 썼으니 은(恩)과 의(義)의 경중이 밝혀진 셈이다’라고 하였다.¹⁷⁾ 이는 만약 환공의 아들인 장공(莊公)이 부친의 시해를 알고 있었던 강씨와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한다면 의(大義)를 해치게 되는 것이고, 왕법을 거하게 되면 모자간의 은(恩)에 손상을 주게 될 것이니 강씨와의 ‘친(親)’을 끊는 것으로 의를 중하게 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양나라의 계모를 살해한 아들이 친(親)을 끊었기에 대역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공계언의 말과 함께 보여주어 설득력을 더한다. 즉, 부친을 죽인 계모를 살해하더라도 계모와의 친(親)을 끊으면 ‘일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사를 통해 윤유겸은 광해가 인목대비와의 관계를 끊고 인목대비가 광해에게 일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신이 청하건대 대신과 삼사, 인척인 여러 신하들을 불러 신의 글을 보인 다음 존호를 낮추고 분조의 여러 관리와 호위하는 장사들을 철수하게 하소서.(중략) 여러 도에서 공물을 바치는 것과 관리들이 임명받고 사례하는 것을 일체 그만두게 하소서. 공주의 칭호도 삭탈하여 서인(庶人)으로서 혼례를 치르게 하고 그를 모시던 궁녀들도 감축시키고 김제남의 처를 노비 장부에 등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17) 胡氏曰: “徇私情, 則害天下之大義, 舉王法, 則傷母子之至恩, 此國論之難斷者也. 經書夫人孫于齊, 而恩義之輕重審矣.”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그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을 보이소서. 그런 다음 성상께서는 문안하고 음식물을 보내는 일을 정상적으로 어김없이 함으로써 타고난 수명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소서. 18)

윤유겸은 대신과 삼사를 불러 자신의 글을 보여준 후 인목대비의 존호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인목대비를 위한 분조(分朝)의 관리와 장사(將士) 등을 철수하고 그녀에게 공물을 헌납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대비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창대군의 누이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칭호를 삭탈하여 폐서인(廢庶人)으로 혼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인목대비를 배척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다. 윤유겸은 광해가 인목대비와 정명공주를 폐위시켜야 ‘윤리를 다하고 예법을 다하는 것’¹⁹⁾이라 주장하는데, 광해 즉위년부터 있어왔던 논란을 폐위시키는 것으로 종지부 찍으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소의 마지막에서 ‘아래로는 일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있을 경우 법관의 말을 채택하여 국법으로 결단을 내려 권세 있는 자라 해도 동요되지 말라’라는 충고까지 덧붙인다.²⁰⁾ 자신의 상소에서 기인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자 한 윤유겸의 강한 신념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²¹⁾

18) 臣請招大臣, 三司及姻戚諸臣, 以臣之章示之, 貶削尊號, 撤去分朝諸官及侍衛將士. 諸道貢獻, 除拜謝恩, 一切停罷. 而削公主之號, 以庶人行婚禮, 汰滅侍御宮人, 仍定嫡男妻于隸籍, 以示通國臣民不共戴天之義. 聖上則問安饋遺, 不失常儀, 使得善終其天年.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9) 이처럼 하는 것이 바로 윤리를 다하고 예법을 다하는 거조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중외의 백성들이 어느 누가 성상의 효도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하 후세에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乃盡倫盡制之學也. (夫如是, 則中外萬姓, 孰不稱聖上之孝, 而亦可有辭於天下後世矣, 豈不盛哉?)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20) 今此大議之發也, 上自大臣, 下至庶官, 萬一有異議者, 殿下採執法者之言, 斷以王法, 不以權貴而擾之.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21) 전하께서 큰일을 할 만한 기회를 만난 것이 모두 세 번이었으나, 맨 처음은 계축년에 놓쳤고 그 다음은 지난해에 놓쳤으며 세 번째는 올 봄에 놓쳤습니다.(중략) 때는 두 번 다시 오

그런데, 11월 24일 백사가 헌의(獻議)를 올려 윤유겸의 상소 내용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한다.²²⁾

이항복이 헌의하였다.(중략) “진하를 위하여 이 계획을 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께 요순의 도리가 아니면 진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옛날에 있었던 명훈(明訓)입니다. 순임금은 불행하여 완악한 아버지와 사나운 어머니가 항상 순임금을 죽이고자 하여 우물을 파게 하고는 흙으로 덮었으며(중략) 그래도 순임금은 울부짖으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사모할 뿐, 부모에게 옳지 않은 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시다. 진실로 아버지가 설사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춘추』의 의리에는 자식이 어머니를 원수로 대한다는 뜻이 없습니다.(중략) 이제 마땅히 효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온 나라가 앞으로 점차 감화될 가망이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전하에게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²³⁾

백사는 먼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한 후,²⁴⁾ 광해에게 이것을 계획한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신하는 임금에게 오직 요순의 도리만을 진술해야 하는 것인데, 광해에게 인목대비의 폐위를 종용하는 상소를 올린 자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탄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덧붙여 백사는 순임금의 이야기를 차용하는데, 순임금의 부모가 그를 여러 번 위협에 처

지 않는 법이며 기회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殿下值可爲之機凡三, 而一失於癸丑, 再失於上年, 三失於今春(中略) 時不再來, 機不可失.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22) 이때 공(백사)이 동강(東岡, 도성에서 동쪽으로 25리 떨어져 있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조정의 정사(政事)에 참여하지 않은 지가 이미 5년이였다.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24쪽.

23) 李恒福議曰: “不審誰爲殿下畫此計者, 君父之前, 非堯, 舜不陳, 乃古之明訓. 虞舜不幸, 頑父嚚母常欲殺舜, 浚井, 塗墮(中略) 號泣怨慕, 而不見其有不是處也. 誠以父雖不慈, 子不可以不孝, 故《春秋》之義, 亦子無讐母之意(中略) 今方當以孝治國家, 一邦之內, 將有漸化之望. 此言奚爲而至於絀糲之下哉?”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24日 1617年.

24) “신은 8월 9일에 중풍이 재발하여 몸은 죽지 않았으나 정신은 이미 탈진된 상태입니다. 직접 뱀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분수에 입각하여 죽음을 결심한 지도 지금 거의 반년입니다만 아직 병석에 있습니다.” “臣八月初九日, 重得中風, 身雖不死, 精神已脫. 瞻天望雲, 分死自決, 今垂半歲, 尚在床褥.”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24日 1617年.

하게 하여도 순임금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사모하고 자신을 원망할 뿐 부모의 옳지 않은 점은 보지 않았다고 그는 기술한다. 즉,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윤유겸의 상소를 순임금의 이야기로 논변(論辨)한 것이다. 또한 윤유겸이 기술한 『춘추』의 의리에서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대한다’라는 뜻은 없었음을 지적한다. 공자가 『춘추』에서 강씨를 지칭하며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다만 ‘부인이 제나라로 도망쳤다’라고 기술한 것에 대한 백사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유겸의 주장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사는 광해에게 효(孝)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강조한 후, 신하들의 이러한 말이 광해에게 이르게 한 것을 지적하며 윤유겸을 비난한다. 즉, 백사는 상소가 아닌 헌의를 통해 자식된 도리로 효를 다하는 순임금의 덕을 본 받아야 된다는 것²⁵⁾을 광해에게 건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며칠 후 생원 진호선(陳好善)이 백사는 김제남 무리의 괴수이며,²⁶⁾ ‘지금 논의(백사의 헌의)에서는 감히 ‘아들은 어미를 원수로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유생들의 논의가 어찌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서궁을 내쫓도록 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이항복은 감히 죄를 전하에게 돌리려 했으니 이것만 해도 이미 극도로 패만스러운 짓’이라는 내용으로 백사에게 참형(斬刑)을 내려달라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²⁷⁾ 백사가 광해에게 효를 강요한 것이 의도된²⁸⁾ 오역(誤譯)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25) 爲子之道，體舜之德，克諧以孝，烝烝爲慈。『광해군일기』 光海 9년 11월 24日 1617年.

26) 이항복은 김제남 무리의 괴수이므로 서양갑 등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항복의 병권을 스스로 믿고 공모 결탁하여 때를 기다렸다가 일어나려 한 것입니다. 李恒福乃弟黨魁也，羊甲等之作亂，皆恃恒福之兵柄，連謀竊圖，俟時將發。『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26日 1617年.

27) 1. 今者之議，敢以子無讐母之義爲辭，儒疏之論，豈欲使吾君，自爲廢黜哉？恒福乃敢歸罪於上，已極悖慢。 2. “이항복은 참형에 처하여 팔방에 조리를 돌림으로써 신하로서 임금을 업신여기고 의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한다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仍斬恒福，梟爲示八方，以爲人臣侮上蔑義者之戒，千萬幸甚。『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26日 1617年.

28) “진호선 등은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더러는 주장하고, 더러는 부회하였으니(중략) 모두 양이·급침·서용을 하지 마소서.” “陳好善等，當廢母之論，或主張，或傳會(中略) 茲請勿量移，給牒，殺用。” 『仁祖實錄』 仁祖 13年 4月 11日 1635年.

합계(合啓)하여 ‘순임금은 필부(匹夫)였으나, 제왕(光海)은 종묘사직과 신민이 의탁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순임금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백사의 주장을 해명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⁹⁾ 이로 인하여 백사는 결국 유배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유배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안북도 창성(昌城)과 함경북도 경원(慶源), 삼수(三水) 등의 장소가 논의되었지만 백사는 1618년 1월 6일 함경남도 북청에 유배된다.

2.2. 북청 유배에 대한 백사의 심정

정충신은 백사의 유배를 배행하며 북천으로 이동한 날짜와 경로,³⁰⁾ 그리고 백사의 죽음까지 『북천일록』에 기록하였다. 『북천일록』의 많은 부분은 백사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과 이동에 대한 기록이며, 백사의 심정이 기술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유배형을 선고받은 후 북청으로 이동하면서 백사의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백사가 유배지인 북청으로 출발한 것은 유배형을 선고 받은 지 이틀 후인 1월 8일이었다. 『북천일록』 1617년 12월 24일 기록을 참고하면, ‘오랫동안 광해군의 결정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백사공은 청과(서울시 용산)에 계속 머물면서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한다.³¹⁾ 청과에서 출발한 백사는 산단(山壇)의 주변에서 자신을 배웅하러 온 연릉부원군 이호민(李好閔), 천안 군수 이유간(李惟侃) 등을 만난다. 이때 이호민이 절구시를 지어 ‘산단에서 술잔 들어 강리로 제사지 내누나.[山壇把酒祭江蘿]’라며 백사를 위로하였고, 백사 역시 화답시를 짓는다.³²⁾ 그런데, 이때 백사가 한시의 결구에서 ‘다만 영위는 가고 아니 돌아올까

29) 당시의 우순은 일개 개인이었으므로 비록 사나운 어미에게 침해를 당했다라도 이는 재앙이 한 몸에 그칠 뿐이었으며(중략) 제왕(帝王)은 종묘사직과 신민의 부탁을 받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화변을 만나게 되면 종묘 사직과 신민에게 그 화변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왕이 변란에 대처하는 도리는 일개 개인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30) 백사의 유배 경로는 『북천일록』 참조,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19쪽. 다만, 『북천일록』 1월 15일 지명인 직목(直木)은 대동여지도에는 진목(眞木)으로 기술되어 있다.

31)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목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22쪽.

염려로세.[只恐令威去不歸]라고 기술하는데,³³⁾ 고향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한 시의 내용과 같이 결국 백사는 중풍이 재발하여,³⁴⁾ 5월 13일 유배지인 북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는 ‘살아 있는 사람을 진송하면서 어찌 제사지내누나[祭]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떠나는 사람 또한 아니 돌아올까[不歸]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것이 모두 시참(詩讖)이 된 것이리라.’³⁵⁾라고 기술하였다. 즉, 백사는 자신에게 선고된 북천 유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월 10일~11일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시 <아침 일찍 금성현을 출발하는데 포천의 여러 조카들이 하직하고 돌아가다.[早發金城縣抱川. 諸姪等辭歸]>에서는 ‘한 움큼 눈물이 없는 건 아니나 이별의 자리에 뿌리기가 부끄럽네’³⁶⁾라는 백사의 심정이 나타난다. 통달한 선비는 천지도 잊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가와 이별하는 것은 어렵고도 슬픈 것임을 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별의 자리에서 눈물을 뿌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

32) 此此年年送客歸 이곳에서 해마다 떠나는 이를 보내려고/ 山壇擧酒祭江籬 산단에 술잔 들어 강리로 제사지내누나/ 吾行最晚當何處 내 발걸음 가장 늦어 어느 곳 차지할꼬/ 無得故人來別離 다시는 고인이 찾아와도 이별 없으리로다.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41쪽.

33) 雲日蕭蕭晝晦微 구름 끼니 소슬하고 대낮인데도 어두운데/ 北風吹裂遠征衣 북풍 불어 멀리 떠나는 길손의 옷 찢누나/ 遼東城郭應依舊 요동 성곽이야 웅당 예전 그대로이겠지만/ 只恐令威去不歸 다만 영위는 가고 아니 돌아올까 염려로세. <到靑坡 移配慶源. 又移三水 正月九日. 改北靑. 延陵諸君携壺. 送于山壇道左>.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41쪽.

34) 백사공이 다시 풍(風)을 맞았다.(중략) 늙고 병든 몸으로 멀리 이곳에 유배를 왔으니 설령 식사를 아주 잘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또 다시 풍을 맞았음에야 어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끝이 없었다. 1618년 3월 2일의 기록.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74쪽.

35) 五峯李孝彥 別於山壇之路左. 有山壇把酒祭江籬之句. 沙相和詩. 有只恐令威去不歸之句. 送生何以云祭. 行者乃云不歸. 豈皆詩讖耶. 『月沙集』別集 卷之二, 雜著, <戊午聞見錄>.

36) 達土遺天地 통달한 선비는 천지도 잊는 것인데/ 如何意慘然 어이하여 뜻이 이렇게도 슬프고/ 非無一掬淚 한 움큼 눈물이 없는 건 아니나/ 恥灑別離筵 이별의 자리에 뿌리기가 부끄럽네. <早發金城縣抱川. 諸姪等辭歸.> 『白沙集』卷一.

고, 담담한 듯 가장(假裝)된 모습의 유배자로 이별하고자 하는 백사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시 <잠을 못 이루다.[不寐]>³⁷⁾는 1월 18일~19일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며, ‘세상이 어지러우매 유술(儒術)을 멀리하고 때가 위태로우매 대언(太言)을 꺼리도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세상과 때가 좋지 않음을 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백사는 유술과 대언을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세상과 때가 좋지 않으니 유술을 멀리해서 조정에서 멀어졌어야 했고, 대언을 꺼리듯 현의를 울리지 않았어야 했다는 자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담한 듯 유배지로 향하였지만 사실은 좋지 않을 때를 만나 유배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백사는 ‘사직의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만 창생들을 구제할 만한 힘도 없구려’라며, 창생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직을 걱정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한다. 더불어 ‘누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려 하겠는가’라며 죄인이 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한시 <입으로 부른다.[口號]>에서도 백사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

諸公袞袞登臺省 제공들은 줄을 이어 대성을 오르는데
 匹馬關山我獨歸 나 혼자 필마 타고 관산으로 돌아가네
 蘇武看羊北海上 소무는 북해 가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絕無書雁上林飛 상림원에 날아온 안서는 전혀 볼 수 없구나.

<입으로 부른다>는 『백사집』에 <이십일일에 안변의 민가에서 자는데… [二十一日. 宿安邊民家…]>와 <정평의 유생들이 길 아래에 모여서… [定平儒生等會于道左…]>라는 한시 사이에 기술되어 있다. 앞의 작품은 1618년 1월 21일에 창작하였고,³⁸⁾ 뒤의 작품은 『북천일록』의 기록을 고려하자면 1월 27일

37) 世亂疎儒術 세상이 어지러우매 유술을 멀리하고/ 時危忌太言 때가 위태로우매 대언을 꺼리도다/ 不眠憂社稷 사직의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만/ 無力濟黎元 창생들을 구제할 만한 힘도 없구려.(中略) 家鄉已千里 고향이 벌써 천리나 멀어졌으니/ 誰肯問寒暄 누가 내 안부를 물어주려 하리오. <不寐> 『白沙集』 卷一.

의 일을 한시로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부르다>는 1월 21일에서 27일 사이에 창작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북천일록』을 참고하면, 백사 일행이 안변에 머무를 때 고을의 늙은 아낙이 백사의 행색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백발의 재상께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낸단 말인가?’³⁹⁾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1월 22일 고원(高原) 수령 안대기(安大奇)와 친분이 있다는 자를 믿고 추위를 뚫고 고을을 찾아가지만, 골짜기에 방치된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한다. 유배지인 북청으로 이동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사의 유배를 통탄(痛歎)하였지만, 백사를 대우해주지 않은 사람들도 만난 것이다. <입으로 부르다>에서 백사는 줄을 이어 대성을 오르는 제공들과 필마를 타고 관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한때는 백사도 제공에 속하였지만, 죄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제공들의 대열에 끼어 들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소무의 고사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기도 한다. 소무는 한무제(漢武帝) 때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19년 동안이나 북해(北海)에 억류되었던 인물이다. 한나라에서는 소무가 흉노족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천자가 상림원(上林院)에서 활을 쏘아 잡은 기러기의 발목에 ‘소무가 어느 늙 가운데에 있다.’라는 편지가 있어 19년 만에 소무를 석방하였다는 내용이다.⁴⁰⁾ 백사 역시 소무처럼 ‘상림원에서 날아온 안서’를 기다리지만, 자신은 소무처럼 석방될 수 없고 더 이상 자신이 예전처럼 존경의 대상인 백사가 아님을 북청으로의 이동 중에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약 한 달 정도를 이동하여 2월 6일 유배지인 북청에 도착한 백사는 ‘못 산들은 기필코 호걸을 가두려고 하는지 돌아보니 일천 봉우리가 갈 길을 막아버렸다’⁴¹⁾라는 내용의 한시 <이월 육일에 북청에 당도하다. [二月初六日. 到北

38) 정충신의 『북천일록』을 참고할 경우, 백사 일행은 1월 19일~20일 안변에 머물렀다.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50~52쪽.

39)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51~52쪽.

40) <蘇武傳> 『漢書』 54권.

41) 古松牌記北靑 옛 돈대의 소나무 팻말엔 북청이라 쓰였는데/ 板橋西畔少人迎 판교 서쪽 둔덕에선 마중 나오는 이 적네/ 群山定欲囚豪傑 못 산들은 기필코 호걸을 가두려고 하는지/

靑.]>를 창작한다. 북청이라는 유배지가 호걸을 가두기에 좋은 장소라 기술하는 것으로 백사는 자신이 광해의 조정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실감한다. 한시 <밤에 앉아서 읊다. [夜坐]>⁴²⁾의 경우 북청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창작한 작품으로, 밤이 새도록 묵묵히 앉아 돌아온 길을 계산하던 도중 갑자기 외기러기가 하늘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한다. 외기러기에 대해 백사는 ‘올 때는 웅당 한양성으로부터 출발했으리’라고 이야기 하는데, 광해와 자신이 있던 곳인 한양에 대한 그리움을 기러기를 통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청으로 이동하며 자신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일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으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한 백사는 유배지에서 광해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유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유배시조에 나타난 충의와 세태에 대한 비난

본고는 백사의 시조 중 5수를 유배시조로 보아 분석하고자 한다.⁴³⁾ 정충신의 『북천일록』에는 북청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백사가 창작한 시조가

回望千峯鎖去程 돌아보니 일천 봉우리가 갈 길을 막아 버렸네. <二月初六日. 到北靑.>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63쪽.

- 42) 終宵默坐算歸程 밤새도록 묵묵히 앉아 돌아온 길 계산하는데/ 曉月窺人入戶明 새벽달이 사람 엿보며 문에 들어 밝구나/ 忽有孤鴻天外過 갑자기 외기러기가 하늘 밖에 지나가니/ 來時應自漢陽城 올 때는 웅당 한양성으로부터 출발했으리. <夜坐> 『白沙集』 卷一.
- 43) 이채식이 제시한 이항복의 유배시조 중 285번의 작품은 유배시조로 볼 수 없다. 李宰植, 『流配詩調 範圍再考』, 『겨레어문학』 21:22, 건국대국어국문학회, 1997, 757쪽. (285시조 ‘곳아 색을 밋고 오는 나뉜 禁지 마라 春光이 덧 업슨 줄 낸들 아니 樹樾하라 綠葉이 成陰子滿枝하면 어니 나뉜 도라 오리.’의 경우 杜牧의 <歎花詩>의 구절을 종장에서 차용하였다. 그런데 백사의 한시 <題李興孝美人圖>의 ‘歲華悠悠君不來 세월이 오래도록 낭군은 오지 않는 데/ 石欄金櫻已結子 돌 난간의 금앵은 벌써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구절이 杜牧의 <歎花詩> 창작 동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유배시조가 아닌 ‘미인’을 주제로 한 시조로 보아야 한다. ‘미인’을 주제로 하였다고 해서 모두 유배시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단 한 편 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백사가 유배형을 선고받은 후부터 생을 마감하기까지 창작한 18편의 한시 중 『북천일록』에 기술된 것이 9편밖에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경우 정충신이 기록하지 않은 시조 작품 역시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백사의 시조 중 5수를 유배시조로 선정하였다. 백사의 유배시조는 광해에 대한 충의를 기술한 것과 백사가 당면한 세태를 비난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3.1. 광해에 대한 충의

죄인이 된 신하의 입장에서 자신의 왕에 대한 충의를 기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백사 역시 2수의 시조에서 광해에 대한 충의를 기술한다.

먼저, 백사의 시조 중 정충신에 의해 『북천일록』에 기록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鐵嶺 노픈 峯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孤臣 冤淚를 비 사마 띄여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에 뿌려 볼가 흥노라. (3975)

위의 시조는 유배지로 가는 노정 중 함경도 철령에 올라 창작한 작품이다. 철령을 쉬어 넘는 구름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배형을 선고 받은 후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곳이 없던 작자가 구름을 붙잡고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 입에게 ‘孤臣 冤淚’를 비로 만들어 뿌리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입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북천일록』 1618년 1월 18일 기록에는 백사의 시조 아래에 남원 선비 조정남(趙敬男)이 쓴 ‘이 노래가 서울 안에 전해 퍼지니 궁궐 안의 사람들이 모두 불렀다. 어느 날 광해군이 뒤뜰에서 잔치 벌였는데,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이 곡조를 듣고는 누가 지었는가를 물었다. 궁궐 안의 사람이 사실대로 대답하니 임금은 슬픈 기색을 띠고 우울해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술자리를

파하였지만, 끝내 공을 소환하지는 않았다'라는 야사(野史)가 병기(竝記)되어 있다.⁴⁴⁾ 조정남의 야사는 신빙성을 논할 수는 없지만, 백사의 억울한 유배와 그것을 기술한 시조가 여러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끌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사의 경우 철령에 올라 창작한 한시도 남아 있는데, <처음에 삼수(三水)로 유배시키라는 명이 내렸다가 다시 북청으로 바꾸었으므로, 철령을 넘으면서 기쁜 생각이 들어 짓다. [始有三水之命. 命改北靑. 路踰鐵嶺. 喜而有作.]> 라는 작품이다.

孤臣不度濟人關 외로운 신하는 제인관을 건너지 못했는데
日月昭昭宇宙寬 일월은 환히 비추고 우주는 크기도 하네 (중략)
恩加沙塞水先泮 은혜가 더해지면 변방의 얼음 먼저 풀리고
心健關河路不難 마음 강해지면 간험한 길 어렵지 않네.
唯有憶君千里夢 오직 천리 밖에서도 임금 그리는 꿈꾸니
曉隨殘月趁朝班 새벽 달빛 따라서 조반의 반열을 따르네⁴⁵⁾

위의 작품은 제목만 보아도 삼수로 유배되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북천일록』 1617년 12월 24일 기록을 참고하면, 광해가 백사를 남관(함경남도)에 정배하라고 지시하였고 지의금(知義禁) 윤선(尹銑)이 함경남도 삼수를 주장하였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삼수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윤선이 “삼수는 경원에 비해서 더욱 황량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원래 사람이 이곳에 유배를 오는 경우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귀문관(鬼門關)처럼 보았으니”라고 하였다는 것도 병기되어 있다.⁴⁶⁾ 이에 정충신은 ‘당시의 의논이 백사공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 해석하였으며, 백사 역시 정충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였는지 유배지가 삼수가 아닌 북청으로 정해졌을 때 기쁘

44) 申海鎭,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44~50쪽.

45) 申海鎭,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50쪽.

46) 1. 申海鎭,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37쪽. 2. 『조선왕조실록』에는 ‘이항복을 삼수로 고쳐 정배하였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다. 改配李恒福于三水.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2月 29日 1617년.

계 철령을 넘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로운 신하(孤臣)인 백사는 제인관을 건너지 못한 상태이다. 제인관은 북청에 있는 제인관(濟人館) 혹은 북청 제인참(北靑濟人站) 등의 관문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을 넘으면 온전히 유배객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일월은 밝고 우주는 넓기만 하며 변방은 임금의 은혜로 얼음이 먼저 녹지만,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조화의 반열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철령을 넘어 제인관을 건넌다는 것은 광해와 함께 했던 조정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백사는 친리 밖에서 임금에 대한 충의를 시로 표현하고 유배지로 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철령을 넘으며 창작한 시조와 한시만 보아도 광해를 뒤로하고 유배지로 떠나야 했던 백사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광해에 대한 충에는 孤臣의 冤淚와 광해에 대한 걱정(唯有憶君)이 서려 있는 것이다.

江湖에 期約을 두고 十年을 奔走하니
 그 모른 白鷗는 더디 온다 하건마는
 聖恩이 至重하시니 잡고 가려 흥노라. (165)

위의 작품은 광해에 대한 백사의 마음이 진하게 기술되고 있는 작품이다. 초장에서 강호에 기약을 두고 10년 동안 분주하였다는 것은 백사의 현재에서 10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할 수 있다. 1608년 좌의정이었던 백사는 신병(身病) 때문에 사직소를 여러 차례 올리지만 광해가 윤택하지 않는다.⁴⁷⁾ 백사가 올린 다섯 번째 사직소에 광해는 “경은 마땅히 마음을 편안히 먹고 속히 나와 위태로운 나라일을 돕도록 하라.”⁴⁸⁾라는 말로 백사를 자신의 곁에 둔

47) 1.이항복도 이미 감히 이 명령에 나아가 응하지 아니하고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습니 다.(중략) 경은 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다시 더 충성을 다하라. 李恒福既不敢出膺是命而呈告乞遞(中略) 卿宜安心勿辭, 更加盡忠. 『광해군일기』 光海 卽位年 7月 7日 1608年. 2.좌 의정 이항복이 (신병으로) 사직소를 올렸는데, 윤택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左議政李恒福(身病)再度呈辭. 不允批答. 『광해군일기』 光海 卽位年 7月 13日 1608年.

48) 答左相 李恒福 五度呈辭曰: “予意已諭, 卿宜安心速出, 以扶國家之顛危.” 『광해군일기』 光海 卽位年 7月 20日 1608年.

다. 시조에서 10년 동안 분주하였다는 것은 강호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정에 남아 있어야 했던 10년 전의 백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백구가 백사의 기약이 늦어진다고 말하자, 백사는 종장을 통해 자신이 강호로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지중한 성운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기약을 둔 강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일(유배) 역시 지중한 성운을 갚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광해에 대한 백사의 충의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북천일록』 1618년 1월 18일 백사는 한시를 통해 자신을 ‘孤臣’으로 기술하여,⁴⁹⁾ 광해의 조정에서 이탈한 외로운 신하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북청에 유배된 후 5월 7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백사는 오랑캐가 중원(中原)을 침범했는데도 광해의 조정에서는 군사를 요청하는 격문(檄文)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들으며, 나라에 대한 염려로 속이 타 들어갔다고 정충신은 기록한다.⁵⁰⁾ 또한, 5월 11일에 병사가 찾아와 징병하는 일을 이야기하자 백사는 못마땅함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술을 한 잔 마셨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⁵¹⁾ 자신을 이탈시켜버린 광해의 조정이 유배지에 있는 백사를 염려하게 만들었지만, 백사는 광해의 조정을 험난(詰難)하거나 불충(不忠)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다만, 속이 타 들어갈 정도로 염려하고, 못마땅함을 견디지 못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백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이는 ‘신하는 임금에게 오직 요순의 도리만을 진술해야 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헌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광해에게 충의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세태에 대한 비난과 그 변화

백사는 시조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世態를 기술하기도 하였다. 3수의 시조

49) 孤臣不度濟人關 외로운 신하는 제인관을 건너지 못했는데(하략) <始有三水之命. 命改北靑. 路踰鐵嶺. 喜而有作.>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50쪽.

50)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99~100쪽.

51)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101쪽.

에서 세태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비난, 그리고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長沙王 賈太傅야 눈물도 여릴시고
 漢 文帝 昇平時에痛哭은 무슴 일고
 우리도 그런 썸 만나시니 어이 울고 흥노라. (3544)

백사는 가태부의 고사를 차용하여 유배자가 된 자신의 상황을 접목시켜 기술한다. 초장에서 백사는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였던 가의(賈誼) 즉, 가태부의 눈물이 여리다고 말한다. 중장에서는 가태부가 눈물이 여린 이유를 기술하는데, 가의는 젊은 나이에 박사(博士)를 받고 태중대부(太中大夫)까지 올라 문물제도를 고치는 것에 힘썼지만, 대신들의 질투로 인해 장사왕의 태부로 좌천되었기 때문이다. 가의가 좌천된 시기가 바로 승평시였던 한 문제(漢文帝) 때이기 때문에 그의 통곡은 더욱 서글프게 묘사된다. 백사가 가태부의 고사를 가져온 것은 바로 중장에서 보이는 ‘우리도 그런 썸’을 만났기 때문이다. 즉, 죄 없는 가의를 좌천시킨 대신들의 위세와 모함을 받아 좌천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의의 상황이 백사가 처한 현실(세태)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한 문제는 광해이고, 가의는 백사였기에 가태부의 고사는 백사의 상황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사는 중장에서 한 문제가 다스리던 시기를 승평시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광해의 시대를 비난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백사 역시 한 문제의 승평시와 같은 때를 만났지만, 가의처럼 울어야만 하는 상황이 역울하여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히 백사가 가의의 고사를 가져온 것은 백사 역시 20대 초반에 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박사와 정언(正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가의는 백사와 많은 부분이 닮았기 때문에 고사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때에 유배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함이 컸을 뿐, 이러한 세태를 비난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의 좋지 않은 소식들이 유배지인 북청까지 들려오자 백사는 자신이 당면한 세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

時節도 저러흐니 人事도 이러흐다
 이러 흐거니 어이 저러 아닐소나
 이런자 저런자 흐니 한숨 겨워 흐노라. (2533)

(나)

귀먹은 쇼경이 되어 山中의 들어서니
 들은 일 업거든 본 일이 이실소나
 입이야 성하더라마는 무슴 말을 흐리오. (492)

(가)에서의 ‘시절’은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백사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절과 인사, 두 가지에 대한 개탄(慨嘆)이다. ‘시절이 저러하니 인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사가 이러한 것을 보니 어이 시절이 저렇지 않겠는가’라는 백사의 탄식인 것이다. 『북천일록』 1618년 3월 1일의 기록을 살펴보면,⁵²⁾ 이날 병사가 보낸 조정의 소식지인 조보(朝報) 한통이 도착한다. 조보는 ‘정청(廷請)이 완결되었고, 인목대비의 존호를 없애고 다만 서궁(西宮)으로 칭하도록 한다는 교시가 내려졌다’라는 내용이였다. 백사가 현의를 올리면서까지 지키고자 하였던 인목대비가 처참하게 폐위된 것이다. 이에 백사가 “근래에 나라에서 역모를 다스리는 것이 자못 엄하지만 그러한 흔적이 모두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 인목대비를 폐위하자고 청한 이 무리들은 실로 대역무도(大逆無道)한데, 내가 사귀었던 무리들도 또한 정청(廷請)에 참여한 자가 많으니 심히 한심스러운 일이구나.”⁵³⁾라고 하였다. 역모를 다스리는 것을 엄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역무도한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자신의 무리 중

52)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73쪽.

53)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73쪽.

에도 이에 속하는 자가 많으니 이러한 것이 바로 시절과 인사가 이러저러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한숨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현의까지 올려 인목대비의 폐위를 막아보려 한 백사는 작품을 통해 시절과 인사가 도탄에 빠진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백사는 자신을 귀먹은 소경이 되어 산중에 들었다고 표현한다. 시절과 인사에 대해 기록한 『북천일록』 3월 1일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면, 백사를 모시고 있던 자들이 “아무개 아무개는 모두 공(公)과 가장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인데, 훗날 서로 만나게 되면 장차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려 하시는지요?”라고 묻자 백사가 “모두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들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이야 비록 가련할지라도 이미 역모에 참여하였으니 사귄 친분은 이미 끊어졌으며, 다른 때에 만나더라도 그저 범연히 서로를 대하는 데 불과하네.”라고 대답한 것을 볼 수 있다.⁵⁴⁾ 중장에서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다고 말한 것은 협박을 받아 따라간 아무개들에 대해 백사는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은 성하여 그들이 역모에 참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분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뒷날 만나면 그저 범연하게 대하겠다고 백사는 말한다. 자신은 귀먹은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개들의 반역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사의 다짐이기도 하다. 이는 『북천일록』 1618년 4월 20일의 기록과도 연결되는데, ‘백사공은 간신들이 나라를 그르치고 있는데도 임금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중략) 나라가 하루 아침에 금수와 같은 풍속으로 변하는 데다, 오랑캐가 틈을 엿보아 침입하려는 위태로운 형상이 눈앞에 닥쳤음을 늘 염려하였다.(중략) 나라를 돌보는 걱정이 간절했지만 속 타는 울분을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태워 소갈증(消渴病)이 되고 말았으니 입으로 항상 얼음을 삼키고 있었다’⁵⁵⁾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는 소경처럼 되기를 선택한 백사의 품성을 짐작할 수 있다.

54)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73~74쪽.

55) 申海鎮,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사, 2020, 88~89쪽.

백사는 시조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현실의 세태를 비난하였지만,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화를 삭이는 것으로 자신의 울분을 삼켰던 백사는 결국 중풍이 재발하여 생을 마감하게 된다. 백사가 자신의 시조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광해에 대한 그치지 않는 충의와 광해의 조정이 만들어내는 아연(啞然)한 세태를 짧게나마 비난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고는 백사의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로 지금까지 깊게 연구되지 않았던 백사의 유배동인을 밝히고 백사의 심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사의 유배동인은 윤유겸의 상소에 현의를 올려 비판한 것이었다. 윤유겸은 상소를 통해 사사된 김제남에게 추형을 선고해주기를 간청하였으며, 김제남에게 추형이 선고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백사는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윤유겸의 상소를 순임금의 이야기로 논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유배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백사는 북청으로 이동하며 자신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한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광해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자신의 유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백사는 유배형을 선고받은 후 5수의 시조를 창작하였으며, 시조를 통해 광해에 대한 충의를 기술하고 또 자신이 당면한 세태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자신을 이탈시킨 광해의 조정이 북청에 유배된 백사를 염려하게 만들었지만, 백사는 광해의 조정을 힐난하거나 불충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광해에게는 끊임없이 충의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백사는 시조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현실의 세태를 비난하였지만,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모

습은 보이지 않았다. 백사가 자신의 시조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광해에 대한 그치지 않는 충의와 광해의 조정이 만들어낸 세태를 짧게나마 비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사의 유배시조 연구를 통해 17세기 유배시조의 특징을 밝히는 데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성용, 「광해군代 春秋논쟁과 李恒福의 『魯史零言』-廢母論議를 둘러싼 『春秋』 해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金宗鎭, 「白沙 李恒福 시의 몇 가지 국면들-, 『대동한문학』 제25집, 대동한문학회, 2006.
- 문성대, 「이항복의 골계적 기질과 웃음의 이면(裏面)-문학작품과 우스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36집, 우리어문학회, 2010.
(UCI : G704-001387.2010..36.008)
- 朴乙洙, 『韓國詩調大事典』, 亞世亞文化社, 1992.
- 徐漢錫, 「李恒福의 文學官에 對한 小考」, 『동방한문학』 제29집, 동방한문학회, 2005.
- 申海鎭, 『북천일록』, 도서출판 보고서, 2020.
- 이성형, 「白沙 李恒福의 『朝天錄』 研究」, 『한자한문교육』 제17집, 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李聖炯, 「晚雲 鄭忠信의 『白沙先生北遷日錄』 研究」, 『한문학논집』 제45집, 근역한문학회, 2016.
(UCI : G704-SER000008636.2016.45..002)
- 이승수, 「李恒福 이야기의 전승 동력과 기원」, 『동악어문학』 제56집, 동악어문학회, 2011, 35~71쪽.
- 李宰植, 「流配時調 範圍再考」, 『겨레어문학』 제21·22집,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 李鍾建, 「白沙 李恒福 詩文學論」, 『동악어문학』 제28집, 동악어문학회, 1993.
- 李鍾建, 「白沙 李恒福 時調論」, 『시조학논총』 제13집, 한국시조학회, 1997.
- 이종건, 『백사 이항복의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2.
-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목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 정역기, 「白沙 李恒福과 서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주사학』 제24·25집, 경주사학회, 2006.
- 정역기, 「白沙 李恒福의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제8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07.

| Abstract |

A Study on Exile Sijo of Lee Hang-bok (Baeksa)

Kwon, Hyun-ju

Yeungnam. Univ. Lecturer.

Lee Hang-bok (Baeksa) was quite experienced in state affairs that he was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War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for five times, but he was involved in the deposal of Queen Mother Inmok and ended his life in Bukcheong, the place of exile. Baeksa left a total of six pieces of sijo. This study regarded them as exile sijo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Before analyzing Baeksa's sijo,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 he was sent into exile in Bukcheong and the course to the place. The incident, the deposal of Queen Mother Inmok, began from Yoon Yoo-gyeom's appeal, and he criticized her father, Kim Je-nam, to insist on her deposal. Because it would be easy to insist on the deposal of the Queen Mother when Kim Je-nam is sentenced with the banishment penalty(追刑) by additionally charging him for treason. He also referred to a narrative i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argued that King Gwanghaegun shall cut off Queen Mother Inmok and that Queen Mother Inmok told King Gwanghaegun to become a 'commoner.' In response to this, Baeksa argued against Yoon Yoo-gyeom's appeal, which insisted on the

deposal of Queen Mother Inmok through the story of Emperor Shun. However, Baeksa's request to King Gwanghaegun for filial duty was intentionally misinterpreted and he was sent into exile as a result.

Through exile poems, Baeksa expressed loyalty reflecting his anger and also criticized the world that made him an exile. For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on Baeksa and his literature that focused on his exile poems,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Baeksa's feelings as an exile in relation to his exile in Bukcheong and poems.

Key words : Baeksa, Lee Hang-bok, Exile Sijo, allegiance(忠義), criticism of the world